

# 門中文庫에 대하여

——특히 壽峰精舍·映奎軒 兩文庫를 中心으로——

李 春 熙※

## I. 緒 言

새로운 形態의 近代圖書館이 생겨 나기 前까지 우리 나라에는 대체로 네가지 形態의圖書館이 있었다. 卽 그 하나는 奎章閣과 같은 王立圖書館이며, 두번째는 成均館, 鄉校, 書院 등 教育機關에 設置 되었던 學校圖書館이고, 세번째는 門中の 子弟教育을 위해 設置된 門中文庫이며 이 밖에 個人文庫가 있었다.

奎章閣, 書院, 鄉校 등의 文庫에 관하여는 部分的으로 남아 研究된 바 있으나 門中文庫에 관하여는 전혀 關心 밖에 있었던것 같다. 筆者는 지난 1968年 慶尙道 地方의 書院文庫를 踏查하던 중 奉化의 金氏門中에서 設立한 映奎軒文庫를 보고, 우리 나라에 門中文庫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 후 門中文庫에 대한 關心을 늘 두고 있던 차, 지난 해에 또다시 文氏의 門中文庫라고 할 수 있는 壽峰精舍文庫를 大邱 花園에서 보고 門中文庫에 대한 研究의 必要性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이 두 文庫는 그 設置目的에 있어서 다 같이 門中을 爲한다는 共通點을 지니고 있어, 다른 文庫와는 엄연히 區別되어야 하므로 筆者 나름대로 門中文庫라는 名稱을 붙여 보았다. 이들 두개의 文庫만을 對象으로 하여 우리나라 門中文庫의 本體를 考究한다는 것은 다소 無理한 일이기

※ 成均館大學校 圖書館學科教授.

는 하나, 우리나라 圖書館史研究에는 勿論 李朝末의 敎育, 文化 및 門中社會研究에도 一助가 되겠기, 우선 두개의 門中文庫만이라도 筆者가 直接 踏査하고 알고 있는 바를 整理하여 紹介하는 바이다. 後日의 門中文庫에 대한 보다 많은 發掘과 研究에 期待한다.

## II. 壽峰精舍文庫

이 文庫는 慶尙北道 達城郡 花園面 仁興洞에 位置하고 있으며 創設者는 韓末의 地方富豪이며 篤志家인 文樸이다. 文樸의 字는 章之, 號는 壽峰 或은 守白堂이라 하였다. 그의 號를 따서 壽峰精舍라 이름 하였고 壽峰精舍는 本堂과 書庫 二棟으로 되어 있으며, 書庫는 本堂 左側에 位置해 있다. 書庫는 約 7,8坪 内外의 아담한 建物로 出入口 위에는 尊安閣이라는 篇額이 걸려있다.

文庫의 設立을 위하여 藏書를 언제부터 蒐集하기 시작 하였는지 그 確실한 年代는 알 수 없으나, 推測컨대 韓日合邦으로 國運이 기울기 시작한 1910年 頃이 아닐가 한다. 그것은 本文庫 創設者인 文壽峰의 交友關係나 그 所藏圖書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特徵 등에서 알 수 있다. 文壽峰은 韓末의 學者요 憂國志士인 滄江 金澤榮과 가장 가까운 親交를 맺고 있었다. 文壽峰이 滄江을 처음 맞난것은 中國 北京이었다고 하니 아마도 滄江이 中國으로 亡命 했던 1908年 頃이 아닐가 한다<sup>1)</sup>. 金滄江은 1894年 編史局主事, 1895年 內閣記錄局史籍課長, 1903年 文獻備考續撰委員, 1905年 學部編纂委員 등을 歷任하고, 同年 乙巳條約으로 國家의 將來를 痛歎 1908年 中國으로 亡命하여 淸나라의 康有爲, 鄭孝胥 등과 交友하면서 餘生을 文章과 學問으로 보냈다<sup>2)</sup>. 滄江은 위의 經歷에도 나

1) 壽峰 文樸의 後孫 文熙英氏에 依함.

2) 宋相燾 編著, 騎驢隨筆, p.161~162.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71(韓國史料叢書, 第二)

타나 있는 바와 같이 書籍編纂과 많은 關係를 가지고 있었던 碩學이었다. 壽峰精舍 內壁에는 지금도 文壽峰에게 써 보낸 鄭孝胥의 行書 對聯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滄江을 通하여 鄭孝胥와도 文通이 있었던 것 같고, 또한 滄江은 中國亡命 以後 계속 壽峰과의 交友를 持續한 것이 分明하다.

또한 本文庫藏書 중에는 當時 中國으로 부터 直輸入한 巨帙 清版圖書들이 많이 包含되어 있으니, 이는 모두 滄江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典籍에 대한 높은 眼目を 가지고 있었던 滄江은 本文庫의 藏書蒐集過程에 있어서 많은 影響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다. 中國圖書 以外에도 壽峰은 一年間의 外遊를 마치고 國內에 돌아와 계속 우리 나라에서 刊行된 古今의 書籍을 널리 蒐集 保管하였다.

壽峰이 이와 같이 國內외의 書籍을 널리 수집하게 된 것은 鄉里의 子弟教育을 爲해서였다. 韓日合邦을 前後하여 特히 乙巳條約 以後 우리나라 儒生들 간에는 日帝侵略에 대한 抵抗이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났다. 그 중의 하나로 日帝教育에 대한 抵抗을 들 수 있으니, 이 무렵에 全國의 山間僻地에는 日帝가 權장하는 學校나 그들의 新學問을 反對하여 많은 數의 書堂이 급격히 增加되고 있었다<sup>3)</sup>. 따라서 本文庫의 設立動機도 이러한 抵抗의 一環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 登場한 日帝教育機關인 學校를 反對하고 傳統的 教育機關인 書堂을 育成하여 그들의 子弟를 日帝로 부터 保護하고 教育하고자 함에 있었다.

本精舍見行節目에는 다음과 같이 그 設立目的을 밝히고 있다.

「是堂之設 本爲教育子弟 應接賓客 而教育又爲之本 則必先修孝悌忠信 且讀書學文 不可一日休廢事」<sup>4)</sup>

子弟의 教育을 그 첫째 目的으로 내 세우고 있으며, 修學의 根本은 孝悌忠信에 있었다. 그리고 또한 本精舍에 들어와 勉學하는 門中의 子

3) 大野謙一著, 朝鮮教育問題管見, P. 69. 朝鮮總督府學務課內朝鮮教育會, 1936

4) 壽峰精舍見行節目, 第1條.

弟들에게는 無料로 紙筆墨을 供給하도록 上記節目에 아래와 같이 規定하고 있다.

「門子弟來學者 所用紙筆墨(每人一年厚紙二卷白紙四卷筆十柄墨五笏)俱給事<sup>5)</sup>.

即 門中の 子弟들은 一人當 一年에 厚紙 2卷, 白紙 4卷, 붓 10柄, 먹 5笏을 供給 받았으니 그들의 勉學에 相當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한편 本文庫所藏圖書의 利用도 그들에게는 比較的 自由로있을 것이다.

藏書는 모두 6,948冊으로 書院文庫와 比較해 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만큼 많은 數이다. 書院文庫로서 가장 많은 數의 藏書를 保管하고 있는 곳이 安東의 陶山書院이나, 그 藏書量은 約 4,400冊 程度에 不過하니, 地方文庫로서는 가장 많은 量의 圖書를 保有하고 있는 셈이 된다<sup>6)</sup>.

이를 類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 表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藏書는 經史子集 全般에 걸쳐 蒐集되어 있으며, 그 중 經部가 536冊, 史部 1,813冊, 子部 588冊, 集部 4,011冊으로 集部가 全體藏書의 約 60%로 가장 많고, 다음이 史部の 26%이다. 特히 史部に 있어서 中國의 正史類

壽峰精舍文庫藏書類別統計 7)

經部	冊數	史部	冊數	子部	冊數	集部	冊數	計
易類	30	正史類	592	儒家類	493	總集類 } 別集類 }	4,011	
書 "	40	編軍·別史 "	409	兵家 "	11			
詩 "	29	雜史·其他 "	812	法家 "	8			
禮 "	48			農家 "	16			
春秋 "	18			醫家 "	84			
孝經 "	2			天文 "	20			
四書 "	143			藝術 "	10			
小學 "	17							
諸經總義	209							
計	536		1,813		588		4,011	6,948

5) 上掲書 第11條.

6) 拙著, 李朝書院文庫庫. p.28. 서울, 國會圖書館, 1969.

7) 前記 文熙英氏가 作成한 壽峰精舍書冊目錄(1973)에 依據하였음.

는 約 600冊으로 처이 完全하다고 할 수 있으며, 韓國史部門도 三國史記, 高麗史, 國朝寶鑑 등 基本史料를 거이 網羅하고 있다. 經部에서는 當時 教科書로 많이 利用된 四書類가 143冊으로 가장 많으며 諸經總義 209冊은 十三經註疏 190冊이 包含됨으로서 그 數가 많이 나타난 것이다.

子部에 있어서는 儒家類의 圖書가 가장 많고, 그 밖에 兵家, 農家 醫家, 天文類 등 諸書도 있다. 大개 鄉校나 書院 등의 諸文庫가 儒家類 一色이라고 할 만큼 이들 諸家의 圖書를 갖추고 있지 못한데 比해 本文庫는 그 蒐集傾向이 매우 多樣하다고 할 수 있겠다. 特히 醫家類의 圖書는 7種 84冊이나 된다.

이와 같이 여러 主題에 걸쳐 多方面으로 圖書가 蒐集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든 言及한 바와 같이 文庫 創設者가 처음부터 門中の 子弟教育을 爲한다는 目的意識에서 出發한 때문일 것이며, 이 밖에 本文庫 設置를 위한 圖書蒐集이 政治 社會的으로 變革이 甚했던 韓末에 시작 되었다는 點, 그리고 前記한 金滄江과 같은 文獻專門家의 助力이 매우 컸었다는 點 등도 考慮될 수 있겠다.

本文庫의 또 하나의 特徵은 어느 本도 落帙이 없고 모두 完帙本이라는 點이다. 例를 들면 高麗史, 十三經註疏와 같은 巨帙本들에 있어서도 단 한편의 落帙이 없다. 이것은 圖書蒐集에 있어서나 그 管理에 있어서 用意周到한 努力을 傾注하였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藏書의 管理는 書院의 경우와 비슷하며 미리 마련된 規則에 따라 철저한 감독을 하였다. 本精舍見行節目에 依하면 每年 二人의 有司를 定하여 一人은 書冊을 管掌케 하고 一人은 財務에 관한 일을 擔當케 하였다. 書冊을 管掌하는 有司는 圖書의 貸出, 記載 등 隨時 行하는 業務以外에 年一回의 圖書點檢을 兼한 曝曬를 實施하였다. 또한 上記 節目 第 2條에는,

「披閱之際 勿致點污扯裂 又不可輕易借人 若不得已借人 則必籍記 以便推還事」

라고 規定함으로써 圖書의 汚損을 엄격히 防止하였으며, 圖書는 아무에게나 輕率히 빌려주어서는 안되었고, 不得已 빌려 줄 때에는 반드시 장부에 記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曝書에 대해서도

「書冊每七月初 一番曝曬 以防蟬食濕壞事」<sup>8)</sup>

라고 規定하고 있어 每年 7月初에 한번씩 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氣候 關係로 모든 文庫들이 曝曬를 할 경우에는 으레히 雨期나 寒冷期를 避하여 太陽熱이 가장 강한 陰曆 7月 중에 行하는 것이 한慣例로 되어 내려왔다.

藏書의 分類는 當時의 慣例에 따라 대강 經史子集의 順으로 備置해 두고 利用케 하였으며, 分類記號나 圖書記號 같은 것을 所藏圖書에 表示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 Ⅲ. 映奎軒文庫

이 文庫는 慶北 奉化郡 奉化面 海底里에 있으며, 設立者는 韓末의 嶺南儒林인 金資植 金華永等이다. 海底里는 義城金氏의 聚落地로 肅宗時 大司成, 江原道觀察使 등을 歷任한 바 있는 八吾軒 金聲九의 後孫들이 主로 居住하고 있다. 金資植은 八吾軒의 八代孫이며, 映奎軒記을 쓴 金華永은 그의 叔父로 그 先祖들은 代代로 文翰이 끊기지 아니 하였다. 그의 高祖父 金熙洛은 陶山科에 登第하여 司憲府持平을 거쳐 奎章閣抄啓 文臣으로 있었고, 그의 祖父인 魯園 金喆銖는 成均館에서 修學하다가 大院君의 書院毀撤令에 反對 捲堂의 先唱者로 물리어 忠淸道 文義에 流配된 바 있었고, 그 후 鄉里에 돌아와 子弟教育에 平生을 보냈으며, 著書로 魯園集(10卷 5册)이 있다<sup>9)</sup>.

映奎軒은 1919년에 建立되었지만 그 文庫는 魯園때 부터 蒐集되었으

8) 壽峰精舍, 前掲書, 第3條.

9) 金華永 著. “家狀”(魯園集, 卷十, 附錄 所載).

며 映奎軒도 그의 遺志에 따라 成立되었다. 這間的 經緯를 金華永의 映奎軒記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我家十世清貧，每恨載籍之不博，先考魯園府君，謄寫書冊，教不肖兄弟，鮮讀板本經史，先兄聾山公，得內閣本七書，唐本春秋十三經註疏，禮記，左毅公班馬史，韓柳文，李杜詩，歷代帝王筆，及王趙米翁數十卷，父子兄弟讀而講之，重而尊之，若周家之有赤刀大訓，逮家姪賚植，益得瀟洛書，及東儒諸家千餘卷，上自唐虞典謨，下至明清，我東文獻，幾乎其博矣，乃述先人遺志，起書樓八間海上，中四間爲堂，東西四間爲室而北二間藏經史，南二間分爲老少之居，扁西藏曰尊經，東藏曰尚古，今扁于堂曰映奎軒，蓋取古人藏書萬卷，奎華自映之意也，賚植窃恨先考先兄之不及見斯築之成，要余其實，余泫然曰 此誠先志也」<sup>10)</sup>

先人の 遺志에 따라 書樓八間을 海村에 세웠다면가 或은 “이는 참으로 先志의 뜻”이라던가 하는 말을 通해서도 映奎軒 建立에 대한 뜻은 魯園에서 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sup>. 또한 그의 兄인 聾山 金蘭永은 父志를 받들어 內閣本을 위시하여 唐本, 拓本에 이르기까지 冊을 널리 蒐集하였고, 그의 姪 金賚植도 東儒諸家の 書 千餘卷을 수집하였다고 하였으니, 映奎軒藏書는 주로 金蘭永 父子에 依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本文庫가 무엇 보다는도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그 設立目的이 어느 特定 個人을 위한 것이 아니라 宗族의 讀書장려를 위한 門中文庫라는 點에 있다. 卽 同記에

10) 金華永 著. 映奎軒記. 1919.

11) 魯園은 榮州魯谷村에 居하였을때 “魯園書室”을 두고 있었다. 金華永의 “家狀”에 「經史諸子 千餘卷在魯園書室」云云한 것을 보면 映奎軒藏書중에는 魯園自身이 蒐集한 書冊도 相當數 包含된 듯하다.

「今斯軒也，不于家，而亦不于絕境中乎，祖先邁軸之名塢大村，而高朗快  
闊，苟使家人宗族，有讀書之志，則無負笈齋箱之勞，而朝夕焉 俛仰焉  
…奎華之照映 理固必矣，人材之輩出 亦不但爲一家之私 願賚勉焉」

云云한 것으로 마루어 보아도 그 趣旨을 充分히 理解할 수 있다.

映奎軒은 위의 引用文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八間의 獨立建物로 동내 한 가운데 位置하고 있으며 建物 西便에는 「魯經」 東便에는 「尙古」 中央에는 「映奎軒」이라는 扇額이 各各 걸려있다.

藏書는 대개 經史子集의 四部로 分類하였으며, 또한 그 冊子目錄도 傳存되고 있으나, 現在는 먼지로 뒤덮인 箱子속에 無秩序하게 保管되고 있다.

藏書의 總數는 306種, 2,096冊으로 이를 類別로 나누어 보면 다음 表와 같다.

經·史部가 各各 500冊 程度이고, 子部가 255冊에 集部가 875冊으로 全體 藏書의 約半은 集部가 차지하고 있다.

經部는 모두 51種 467冊으로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部門이 禮類의 18

映奎軒文庫藏書類別統計<sup>12)</sup>

經部	種數	冊數	史部	種數	冊數	子部	種數	冊數	集部	種數	冊數
易類	3	23	歷史類	20	386	儒家類	30	131	總集類	6	57
書 "	4	33	傳記 "	18	58	道家 "	2	14	道家 "	126	818
禮 "	18	190	地理 "	3	20	類書 "	5	24			
春秋 "	8	125	其他 "	8	35	藝術 "	36	77			
孝經 "	2	4				其他	1	9			
四書 "	15	75									
小學 "	1	17									
計	51	467		49	499		74	255		132	875

種 190冊이며, 다음이 四書類, 春秋類의 順으로 되어있다. 史部는 49種

12) 映奎軒書冊目錄(筆寫本, 年代未詳)에 依據하였음.



499冊으로 그 大部分이 中國의 歷史類 圖書로서, 史記, 漢書 등 中國의 基本歷史圖書은 구비되어 있으나, 三國史記, 高麗史 등 國史類 圖書는 거의 없으며, 오직 東國通鑑 6卷이 눈에 뜨일 뿐이다. 이러한 點은 前記 壽峰精舍文庫와 많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子部는 74種, 255冊이며 그 중 藝術類가 36種 77冊으로 가장 많고, 다음에 儒家類 30種 131冊이다. 藝術類는 그 大部分이 書藝關係 拓本들로서 地方의 文庫로서는 매우 特色있는 蒐集이라고 볼 수 있다. 魯圖父子의 書籍蒐集에 대한 眼目과 嗜好의 一面을 反映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 道德經 南華真經 등의 道教類의 圖書가 있다는 것도 退溪의 影響이 強한 嶺南의 文庫로서는 例外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集部는 모두 132種, 875冊으로 龔巖, 退溪, 西厓, 鶴峰 등 諸文集을 위시하여 後期에 刊行된 嶺南地方의 文集들이 그 大部分을 이루고 있다. 이 文庫의 藏書內容도 嶺南地方의 書院 등 다른 諸文庫와 별로 다를 바 없으며, 特別 文集類에서 地方의 特色이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阮堂集, 閔文忠公奏議 內閣七書 등 中央의 書冊이 색달리 눈에 띄어 이는 아마도 本文庫의 藏書 蒐集에 當한 魯圖父子들이 奎章閣學士였던 金熙洛의 後孫이오, 또한 魯圖 自身도 太學에 遊함으로서 中央의 知識 層과도 直接, 間接으로 交友한 背景이 그들의 藏書 蒐集上에도 大分히 影響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 IV. 두 門中文庫의 特徵 및 그 性格

映奎軒과 壽峰精舍 兩文庫의 設立經緯와 藏書內容에 대하여 그 大體의 面貌를 살펴 보았거니와, 이제 이 두 文庫를 相互比較하여 그 特徵과 性格을 밝혀 보고저 한다.

一般的으로 圖書館의 性格과 形態를 區分 짓는데 있어서 (1) 設立者 (2) 設立 目的 (3) 機能 (4) 藏書 (5) 奉仕對象 등을 그 基準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壽峰精舍文庫와 映奎軒文庫도 이러한 基準에 따라 그 性格이 考慮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이들 두 文庫는 다 같이 그 設立者가 經濟的으로나 或은 學問的으로나 그 門中을 代表할 수 있는 實力者들이었다. 壽峰精舍의 設立者인 文壽峰은 當時 嶺南地方의 富豪였고, 映奎軒의 경우는 그 設立者가 海底里 義城金氏의 中始祖라고 할 수 있는 八吾軒 金聲久의 後孫이며, 奎章閣學士를 지낸 바 있는 金熙洛의 宗孫들이었다.

設立目的에 있어서도 兩文庫는 다같이 特定 個人을 爲한 것이 아니라 設立者가 所屬된 宗族 或은 門中の 子弟教育和 讀書장려를 爲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이들 門中文庫는 圖書館 本來의 機能의 하나인 教育的 機能을 그 첫째 目標로 삼고 있었으며, 壽峰精舍의 경우는 前記한 바와 같이 教育을 위해 紙筆墨까지 無料로 供給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 門中文庫의 奉仕對象은 주로 門中內의 子弟, 學者들이었고, 管理는 書院의 경우와 같이 有司制度를 두어 圖書의 貸出과 年一回의 曝曬 點檢 등을 實施하였다. 壽峰精舍의 경우는 名文化된 管理 規定까지 마련되어 있었으며, 映奎軒의 경우는 記錄이 없어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대개 前者와 같은 慣例에 準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藏書構成에 있어서는 兩文庫가 다같이 儒學中心의 漢書籍만을 蒐集保管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共通되고 있으나, 그 量에 있어서는 壽峰精舍가 約 3倍 以上이나 많으며, 따라서 그 蒐集範圍도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壽峰精舍의 경우는 中國으로 亡命했던 金滄江의 影響이 至大하였으므로 中國本도 自然히 많이 들여오게 되어 當時 藏書로서는 比較的 참신한 편이었고 地方色에서 벗어난 蒐集傾向을 보여 주었다. 한편 映奎軒文庫는 그 設立年代가 1919年이기는 하나 그 藏書는 훨씬 以前부터 蒐集되어 왔기 때문에 李朝後期에 刊行된 嶺南地方의 文集類가 그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前者의 경우와 같이 中國과의 直接的인 交流도 없었으므로 그 蒐集範圍가 比較的 限定된 편이었다. 따라서 이 文庫

는 前者와는 달리 地方性이 짙은 藏書構成을 이루게 되었다.

兩文庫의 設立年代는 다같이 1910年代이며 또한 그 地域이 모두 嶺南 地方이라는 共通性을 지니고 있다. 어떤 圖書館도 그 社會 或은 한 集團의 強力한 要求없이는 우연히 成立될 수 없으니 이들 門中文庫도 그 例外일 수는 없겠다. 앞에서든 言及한 바와 같이 이들 門中文庫의 出現도 日帝侵略에 대한 良識 있는 儒林들의 抵抗의 一環으로 볼 수 있음으로 그 本質과 性格도 이러한 社會·政治的인 次元에서 究明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이들 兩文庫가 門中의 子弟教育을 強力히 내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社會·政治的인 背景에 起因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兩文庫에 대한 위의 몇가지 特徵에서 그 設立者나, 目的, 機能, 奉仕對象 등이 모두 門中, 宗族과 密接히 關聯되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이를 모두 門中圖書館의 一種으로 보는 所以가 여기에 있으며, 또한 이들 두 文庫는 當時의 어느 文庫와도 그 本質과 性格을 달리하고 있었다.

書院文庫가 一種의 教育機關에 附設된 學校圖書館의인 機能과 性格을 띠고 있는것이라면 門中文庫는 어떤 機關의 附設이 아니라 처음부터 圖書館으로 設立되었는 點에서 書院文庫와는 判異하며, 또한 그 奉仕對象이 一宗族만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最小單位의 公共性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公共圖書館의 一種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公共 보다는 個人圖書館에 가까운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들 圖書館이 門中構成員의 合資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門中의 한 個人의 財産으로 設立되었다는 點을 考慮하면 個人文庫와 다를 바 없으나 門中의 子弟教育과 讀書獎勵를 爲해 公開하고 있다는 點에서 一般 個人文庫와는 또 區別되어야 한다. 따라서 門中圖書館은 우리나라 特有的 圖書館形態의 一種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이러한 門中圖書館이 위의 壽峰精舍文庫와 映奎軒文庫 以外에도 다른 地方에 더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形態의 文庫가 1910年代 韓半島

前에도 存在하고 있었는지 現在로서는 알려진 바 없으므로 앞으로의 發掘과 研究에 期待하는 수 밖에는 없다. 다만 이 두개 門中文庫만을 對象으로 하여 말할 수 있다면 이들 門中文庫는 李朝社會의 諸文庫와 近代圖書館의 中間에 位置한 過渡期 圖書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록 그 規模는 작으나 그 設立이 官이 아니라 民間의 힘에 依한 自然發生的으로 이루어 졌다는데 큰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近代圖書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始發이 日帝에 依한 植民地圖書館이었기 때문에 이들 官立圖書館들은 우리나라 圖書館發展에 많은 沮害要素가 되었던 것이다. 圖書館은 그 社會와 民衆의 強力한 要求와 支持 속에 設立됨으로서 故에 이 圖書館은 비로소 生命力 있는 圖書館으로 發展될 수 있다. 西歐社會의 圖書館들이 이러한 民衆의 要求와 支持 속에 即 아래로 부터의 힘에 依해 成立되고 發展되었다면, 우리 나라의 圖書館은 民衆과는 關係없이 위로부터 官 一方的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民衆과 呼吸을 같이 할 수 없는 유리된 圖書館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門中圖書館은 순수한 民間 圖書館이라는 點에서 우리 나라 圖書館史上 매우 重要한 意義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門中圖書館은 出發初期와는 달리 얼마 못가서 漸次 그 適應力을 잃게 되었다. 日帝의 彈壓 등 여러가지 要因이 있었겠지만 繼續發展해 나가지 못한 本質的인 原因은 門中文庫가 지니고 있는 保守性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들 門中文庫는 비록 1910年代에 設立되기는 하였지만 그 目的이 日帝의 新學問에 대한 反撥로 나타난 것임으로 그 藏書內容도 當然히 李朝社會의 文庫와 조곰도 다를 바 없는 儒學爲主의 構成을 이룸으로서 事實上 이들 文庫는 本質的으로 李朝社會 諸文庫의 延長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社會에 適合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 諸文庫는 그 후 急速히 變해가는 社會에서 漸次 그 適應力을 잃게 되었고 當初의 目的과는 달리 그들 門中の 子弟들은 新學問

을 修業하기 위해 都市로 進出하게 됨으로서 門中文庫는 그 내세운 바 教育的 機能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 門中文庫의 例를 保守性이 강한 嶺南地方에서 만이 볼 수 있다는 것도 興味있는 事實이며 그 本質을 理解하는데 도움은 되나, 이 問題는 앞으로 더 考究되어야 하겠다. 門中文庫는 近畿보다는 保守性이 強했던 地方에 일어났던 現象으로 여겨지며, 그 數도 施設이 간단했던 書堂에 比해 極히 적었을 것이라고 推測된다. 아 물론 門中文庫는 李朝末 儒林社會의 副産物로 나타난 保守的인 圖書館이었기 때문에 다음 世代의 近代圖書館運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1920年代 日帝의 植民地圖書館 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

## V. 結 語

위의 두 文庫에 대한 小考에서 다음 몇가지를 要約할 수 있겠다.

(1) 映奎軒과 壽峰精舍 兩文庫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진 바 없는 門中文庫라는 색다른 形態의 圖書館의 一種이며, 또한 이들 門中圖書館은 순수한 民間 圖書館이라는 點에서 우리나라 圖書館史上 그 지니는 바 意義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2) 이들 두 門中文庫는 다 같이 1910年代에 設立 되었으며, 또한 그 目的이 門中の 子弟教育에 있었으니, 이들 門中文庫의 設立動機는 當時 우리나라 儒林들의 日帝侵略과 新學問에 대한 抵抗의 一環으로 볼 수 있다.

(3) 위의 두 門中文庫는 비록 1910年代에 設立되기는 하였으나 그 設立目的이 儒學教育에 있었음으로 그 藏書도 自然히 儒學爲主로 蒐集되었으으며, 따라서 李朝의 書院·鄉校 등 諸文庫와 藏書의 內容上 크게 다를 바 없었다.

(4) 이들 두 門中文庫는 그 機能上으로 보아 李朝封建社會에 適應될 수 있는 文庫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후 急速히 變해 온 近代社會와는

呼吸을 같이 할 수 없었음으로 敎育圖書館으로서의 機能과 그 適應力을 漸次 상실하게 되었다.

끝으로 門中文庫 當事者 및 圖書館 立案者들은 이들 文庫를 한 歷史的 遺物로만 放置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圖書館綱과 어떤 紐帶를 맺어 예를 들면 그 地方의 大學이나 公共圖書館 또는 마을 文庫 등과 제휴하여 계속 利用되고 發展될 수 있는 길이 摸索되기를 바란다.

## A Study on the Clan Community Library in Korea

by Choon-hee Lee\*

The libraries that existed during the latter period of the Yi Dynasty may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the royal library, the school library, the clan community library, and the private library. Of these, the clan community library has yet received very little attention in the study of Korean libraries.

In this study the author discusses the purposes, functions, and collections of the clan community library to clarify what that particular type of old libraries in Korea was.

The clan community library functioned within individual clan communities to give young people Korean traditional education protecting them from possible influences of Japanese version of Western scholarship which had threatened the traditional value systems of the society.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clan community library was a unique community institution created by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public library movement should trace its origin back to the activities of the libraries.

Unfortunately the growing suppression and control of the Japanese colonial regime upon the traditional schools made the purposes and development of the clan community library movement a tragic experience before its flowering.

The clan community library was a Korean native public library which came out in response to a historical situation and community need. It may deserve more attention in future study of the national library movement of Korea.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